

유아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부모자녀관계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Effects of a Parenting Training Program for
Improving Parent-Child Relationships in Multi-cultural Families*

민성혜(Sung Hye Min)¹⁾

김경은(Kyung-Eun Kim)²⁾

김리진(Lee Jin Kim)³⁾

ABSTRACT

This study centred around the development of a parenting training program for improving parent-child relationships in multi-cultural families and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program. The goal of this program was to improve parent-child relationships in multi-cultural families. The program consists of 8 sessions and each session employs a variety of activities and teaching methods to help multi-cultural mothers to become more involved in the a program. The participants were 12 mothers of multi-cultural backgrounds in Seoul and Asan city. There 12 mothers were assigned to the experimental group participated in this program for a total of 8 sessions. Data were analyzed according to frequencies, percentiles, means, standard deviations, and paired t-test.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d that this parenting training program for improving parent-child relationships was effective in improving multi-cultural mother's parenting efficacy and reducing their parenting stress.

Key Words : 다문화가족(Multi-cultural Family), 부모교육프로그램(Parent Training Program), 양육스트레스(Parenting Stress), 양육효능감(Parenting Efficacy).

* 본 논문은 2010년도 한국아동학회 춘계학술대회 포스터 발표논문을 확장한 것임.

¹⁾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조교수

²⁾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전임강사

³⁾ 고려대학교 사회정서발달연구소 연구교수

Corresponding Author : Lee Jin Kim, Institute of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Korea University, Seoul 136-701, Korea
E-mail : chum123@hanmail.net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나라는 급격한 속도로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국제결혼으로 인한 다문화가족의 증가로 다문화가족 자녀의 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 다문화가족 현황조사(2008)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자녀는 58,007명으로 2007년 대비 31.8%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만 6세 미만 유아기 자녀는 33,140명으로 57.1%로 보고되고 있다. 이처럼 다문화가족 자녀가 급격한 속도로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연구도 아직은 제한적이며, 이들에 대한 프로그램은 더욱 제한적이다.

다문화가족의 부모자녀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문화가족을 둘러싼 사회적 지지, 부부관계 만족도, 이주여성의 정신건강 등이 부모자녀관계를 위협하고 이로 인해 자녀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한다. 최근 다문화가족 이혼율 급증도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이주여성이 가출을 해서 다시 친정국가로 돌아가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다문화가족의 건강성을 위협하는 사회적인 문제다(전혜정·민성혜·이민영·최혜영, 2009). 지금까지 이루어진 다문화가족 관련 변인은 부부갈등을 종속변인으로 한 연구들(김오남, 2006; 안현정, 2003; 이규삼, 2000)이거나, 이주여성 개인의 정신건강문제(전혜정 외, 2009) 및 언어문제(김오남, 2006; 양정화, 2005), 그리고 사회적 지지와 관련된 연구들(김나영, 2007; 노하나, 2007; 최경숙, 2006; 최지명, 2007)로 크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직 기존의 연구는 다문화가족 부모의 언어발달, 이중문화생활에서 오는 부적응 문제 등 편협한 주제에 집중되어 있으며(민성혜·이민영·최혜영·전혜정, 2009), 다문화가족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다문화가족 자녀들과 관련된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최근에 사회적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또래관계나 학교적응과 학습에서의 긍정적인 효과들도 보고되고 있으나(구수연, 2007; 김상임, 2004; 김희태·권영덕, 2007; 박경자·김송이, 2007; 안현정, 2003), 대부분의 다문화가족 자녀들 또한 편견과 언어문제, 이중문화 생활에서 오는 부적응을 경험하며(김갑성, 2006), 생물학적 한국인 아동에 비해 정서조절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전혜정 등, 2009). 또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정체성 혼란과 자존감 문제(조영달, 2006)를 경험한다고 보고되어왔다. 이처럼 다문화가족의 부모자녀관계의 어려움, 불안정 애착 문제, 그로 인한 정체감 위기 등의 어려움들은 여전히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주제이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7)의 보고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의 자녀가 있는 결혼이주여성들 중 67.2%가 자녀양육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고, 경기도 가족여성개발원(2007)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생활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1순위가 자녀양육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혜정 등(2009)은 다문화가족의 경우 부모자녀관계의 어려움이 줄어들 때,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됨을 강조하고 있다. 부모자녀관계는 자녀의 전인적 발달과 사회적 성장에 기초가 되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인간관계의 원형이다. 특히 유아기는 부모와 긍정적 관계형성과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지각을 발달시키며, 다양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게 되는 시기이다. 영유아기의 부모자녀관계는 유아의 내면화를 통해 일생동안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성인의 긍정적 태도와 행동은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다(최혜영·이은혜, 2005). 유아는 일상에서 부모와 상호작용하는 동안 또래관계에 필요한 사회적

기술을 학습하고, 부모로부터 감성적 보호를 제공받은 유아들은 환경을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는 안정된 기반을 가지게 된다(민성혜, 2006). 즉 유아들은 부모와의 올바른 관계형성을 토대로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확립시키고, 타인을 배려하며 타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등의 친사회적 행동기술을 습득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어머니와 유아와의 관계가 부정, 비난, 갈등과 같이 부정적인 관계인 경우, 유아는 낮은 자기가치감과 자아존중감을 갖게 된다(Harter, Marold, & Whitesell, 1992; Salovey & Mayer, 1996).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받지 못한 유아는 자신을 사랑받기에 충분한 존재로 인식하지 못하여 자신에 대한 가치로움을 내면화하지 못한다. 즉, 유아에 대한 어머니의 부정적인 관점이 유아의 발달에 부적절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다(Hammen, 1992; Harter et al., 1992; Panak & Garber, 1992). 이는 물론 상호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유아기에는 어머니의 부정적인 자아관도 유아의 발달에 매우 깊은 관련이 있다. 어머니의 부정적인 자아관으로 인해, 자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부정적인 심리적 편견을 가지고 자녀와 상호작용하게 될 우려가 깊다(Salovey & Mayer, 1996). 이러한 결과는 부모자녀관계와 자녀의 문제행동 혹은 사회적 유능성간의 관계를 본 연구들(권연희 · 박경자, 2003; 김리진, 2008; 문연심, 2003)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는 자녀에 대한 직접적인 학업지도나 한글 지도에 앞서, 다문화가족 부모들이 경험하는 사회정서적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어 조기에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아기에 부모자녀관계를 긍정적으로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은 다문화가족

의 부모와 자녀의 적응과 발달에 매우 적절한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관계 프로그램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다만 다문화가족의 결혼만족도 향상을 위한 현실 요법 집단 프로그램 실행과 그 효과연구가 이무영과 강기정(2007)에 의해 이루어졌었고, 김오남 등(2008)에 의해 여성결혼 이민자의 남편을 대상으로 부부관계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한 연구 등이 제한적으로 발견될 뿐이다. 그러나 이미 부모기에 접어든 다문화가족의 부모자녀관계에 초점을 둔 구체적이고 구조화된 프로그램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집단 교육프로그램은 대상자들의 요구와 상태에 근거해서 구체적으로 계획되고 실행될 때 가장 효과가 높다.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실행, 평가할 때 대상자의 요구와 상태가 고려되지 않으면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그 효과가 단기적일 가능성이 높다(민성혜 · 김영애 · 김송이, 2008). 특히 부모교육이란 부모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효과적인 자녀양육 방법을 개발하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교육을 의미한다(이재연 · 김경희, 1993). 과거의 부모교육은 부모로서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에게 정보나 지식을 전달하고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었지만, 1965년 헤드 스타트(Head Start) 운동 이후 현대적 관점에서 의 부모교육은 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장려하고 부모가 교육하는 자로서 교육을 도모한다는 의미에서 보다 확대된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 부모들은 다양한 부모교육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부모 자신과 자녀들의 상황에 맞게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지식을 얻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터득하는 데 도움을 받을 것이다.

Grimshaw와 McGuire(1998)는 부모자녀관계를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에서 어머니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자녀의 문제행동 예방 및 감소 그리고 자녀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Bunting(2004)도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적절히 수행되는 경우 아동 행동의 향상, 어머니의 자존감과 관계에 대한 적응력 증진, 향상된 부모자녀관계, 그리고 어머니의 정신건강 증진에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Bunting(2004)은 집단을 기반으로 행동적 접근에 근거를 둔 프로그램을 수행할수록 더욱 효과적이라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Sanders(1992)는 모든 부모나 모든 자녀에게 효과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없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다른 말로 하자면 특정 부모에게 적절하면서 그 부모의 자녀에게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되는 부모나 자녀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고 그에 맞추어 프로그램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미이다.

최근 국내연구에서 김연수(2008)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탄력적 부모되기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탄력적 부모되기 프로그램은 부모역할능력을 강화하고 건강한 가족기능을 증진하는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으로(양옥경·김연수, 2003), 시행 결과 다문화가족 여성결혼이민자 어머니의 부모로서의 자녀양육에 대한 자신감과 역량을 증진하는데 긍정적 영향이 나타났다고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루어진 몇 안 되는 제한적인 다문화가족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의 실태나 요구가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다. 또 기존의 프로그램은 이주여성 즉 자녀가 있는 다문화가족 어머니 역할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프로그램으로 부모자녀관계에 초점을 두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송미경 등(2008)은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부모

경험에 관해 질적연구를 실시하였다. 이주여성들은 자녀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고, 한국에서 결혼 한 후 자신에게 가장 좋은 일로 자녀의 출산이라고 보고한 경우가 많았다. 이상의 보고에 근거하여 보자면, 부모자녀관계의 안정성 또한 다문화가족 전체의 건강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는 전해정 등(2008)의 경로모형과도 연결지어 볼 수 있다. 부모자녀관계의 질 수준이 높아지면 다문화가족을 둘러싼 생태학적 환경의 순환이 긍정적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자녀의 양육시기인 유아기는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시기와 겹쳐져 혼란과 자녀양육에 따른 외로움, 두려움, 불안 등을 호소하는 시기이기도 하였다. 이는 한국문화에서 자녀양육을 아버지보다 주로 어머니가 담당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반영된 것이다. 인봉숙(2002) 또한 이주여성들이 경험하는 양육과 교육을 전담할 수 밖에 없는 열악한 양육환경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에게 유아기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도움이 필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유아기 자녀의 중요한 발달과업은 어머니와의 애착 형성과 적절한 사회적 역할 모델링이다. 이 시기에 이주여성은 이주하자마자 결혼하고, 임신과 출산과정을 경험하는 사례가 많다. 즉, 이주여성이 한국생활에 대한 적응이 채 이루어지기도 전에 부모기에 대한 사전 준비 없이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이다. 이로 인해 바람직한 부모역할에 대한 상을 확립하거나 이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녀를 양육하게 됨으로써 자녀양육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수 있으며 이는 유아기 자녀에게 그대로 전이될 가능성이 많다. 다문화가족의 결혼이주여성은 전형적 자녀의 양육 시기가 문화적응 시기와 겹쳐져 혼란과 자녀 육아의 고

충에 대한 외로움, 두려움, 불안 등을 복합적으로 가지게 되는 상황임을 우선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에게 부모교육을 실시할 때 일반적인 상호작용 유형을 지도한다든가 긍정적인 양육태도에 대해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특히 언어적으로 제약을 가지고 있는 이주여성에게 효과적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양육모형을 제시하고 직접적으로 지도하며 언어적인 제약이 적은 시각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유아기 자녀의 입장에서 이주여성인 어머니와 다른 가족들의 양육방식이 다른 경우 특정 양육자에게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허밍타잉(2005)은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많은 갈등과 혼동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부모들이 상이한 문화와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자녀교육방법, 자녀에 대한 기대까지 서로의 견해가 달라 갈등을 겪기 때문이라고 하였다(민성혜 외, 2009 재인용). 자녀양육은 문화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바이다. 한국에서의 양육방식이 세대를 거듭하면서 유지되는 바가 있는가 하면 어떤 양육방식은 시대에 따라 변화된다. 예를 들어 옛날에는 회초리로 자녀의 종아리를 때리는 것이 양육방법이었다고 하면 최근에는 적절한 한계를 설정하고 신체적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을 적절한 양육방법이라고 이야기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한국식의 양육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자녀관계가 안정적으로 형성되고 신뢰로운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의 부모교육을 통해 부모자녀간의 긍정적인 관계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한국식의 부모자녀관계

를 일방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가족이 가지고 있는 부모자녀관계의 어려움에 근거하여 그들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보다 현실화하고 구체화하여 어느 현장에서나 부모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개발하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1. 프로그램 개발과정

다문화가족의 부모자녀관계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정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2. 효과성 검증

1) 연구대상

다문화가족 부모자녀관계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한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징은 표 1과 같다. 본 연구의 대상은 충남 아산시의 다문화센터와 서울시 은평구 다문화센터에서 통·번역사로 일을 하고 있거나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유아기 다문화가족 어머니 12명이다. 본 프로그램의 교수-학습 방법이 강의식보다는 모의실습이나 토론 수업이 주를 이루므로, 부모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집단의 구성원수를 10명 이하로 정하여 두 집단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사항을 살펴보면, 12명) 모두 유아기 자녀를 두

1) 연구초기에는 실험집단에 다문화가족 어머니 18명이 연구대상으로 선정되었지만, 연구기간 중에 가족경조사, 가족원의 질병, 군은 날씨 등의 이유로 2



<그림 1> 다문화가족 부모자녀관계 증진 프로그램 개발절차

고 있으며, 이 중 3명은 통번역사로 일하고 있고 9명은 전업주부이다. 연령대는 3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20대 1명과 40대 1명도 있다. 출신 국은 중국이 5명, 베트남이 2명 나머지 네팔, 몽골,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로 구성되었으며, 한국어 수준은 듣고 이해하는 것이 가능한 수준이었으며, 결혼기간은 모두 5년 이상으로 나타났다. 학력에서도 초졸 1명, 중졸 1명, 고졸 2명을 제외하고 모두 대졸 이상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본 프로그램의 효과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측정하였다. 다문화가족 부모의 부모자녀관계에서의 어려움과 자신감을 측정하기 위해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 검사를 실시하였고 본 프로그램에 대한 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프로그램 평가지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또한 매 회기별 내용을 녹화하여 회기별 부모자녀관계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회 이상 결석한 부모들은 제외하여 최종 연구대상은 총 12명이었다.

(1) 양육스트레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척도는 우리나라의 사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배경

번호	출신국	학력	연령	직업	한국어 수준	한국거주기간	자녀 연령
1	네팔	대졸	39	통·번역가	상	7년 6개월	6년 3개월 4년 7개월
2	캄보디아	초졸	31	전업주부	중	5년 6개월	4년 1개월 1년 6개월
3	베트남	대졸	33	통·번역사	중상	6년	4년 6개월 6년 6개월
4	필리핀	대졸	41	전업주부	중	6년 4개월	4년 7개월 7년 8개월
5	중국	대졸	35	전업주부	중상	8년	6년 1개월 1년 8개월
6	몽골	고졸	35	전업주부	중상	6년 1개월	5년 4개월 2년 10개월 10개월
7	중국	고졸	32	통·번역가	중상	6년 6개월	4년
8	중국	대졸	33	전업주부	중	5년 10개월	4년
9	중국	대졸	38	전업주부	중	11개월	4년
10	베트남	중졸	24	전업주부	중상	5년 2개월	4년 2개월 6개월
11	중국	대졸	31	전업주부	중상	4년 6개월	3년 10개월
12	일본	대졸	32	전업주부	상	6년 6개월	6년 1개월 2년 10개월

회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여 양육스트레스 측정을 위해 김기현과 강희경(1997)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 요인,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요인, 타인 양육에 대한 죄책감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일상적 스트레스 요인 9문항,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요인 9문항만을 포함하여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구성타당도 검증결과 높은 타당도

를 나타냈으며, 내적합치도는 사전검사 .89, 사후검사 .88로 나타났다.

(2) 양육효능감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는 Gross와 Rocissano (1988)가 개발한 양육효능감 척도를 이경하 (2009)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타당도를 입증하였다. 본 척도는 의사소통능력, 교육,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발달지원의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의사소통능력’이란 어머니가 자녀의 생각이나 요구를 이해하고 자녀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

하는 능력에서의 효능감을 의미하고, ‘교육’은 양육에 대한 지식 및 자녀의 행동에 대한 일관적인 지도능력에서의 효능감을 의미한다. 그리고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은 자녀의 심신건강과 관련된 활동제공 능력에서의 효능감을, ‘발달지원’이란 자녀의 발달과 일상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능력에서의 효능감을 의미한다. 5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구성타당도 검증결과 높은 타당도를 나타냈으며, 내적합치도는 사전검사 .91, 사후검사 .92로 나타났다.

(3)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평가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한 부모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사, 교육일정 및 시간), 개인적으로 혹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로서 도움이 된 점, 자녀에게 도움이 된 점과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 방향에 대해 준비된 면접을 통해 평가하였다.

3) 연구절차

충남 @@시 다문화센터와 서울의 ##구 다문화센터의 협조를 얻어, 부모교육 참가자를 모집하는 공문을 배포하고, 부모교육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부모들에게 본 부모교육 참가에 관한 동의서를 얻었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실험집단 부모들에게는 주 1회 3시간씩 모두 4회에 걸쳐 충남 @@시에서는 2009년 3월에, 서울의 ##구에서는 8월에 ‘다문화가족의 부모자녀 관계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본래 본 프로그램은 1회기 당 1시간 30분으로 구성이 되어있으나, 다문화센터내의 물리적 조건과 어머니들의 심리적인 요구에 따라 2회기를 1번에 실시하는 것으로 협의하였다. 오전 9시 30분에서 11시까지 첫 번째 회기를 진행하고, 30분의 휴식을

취한 후 11시 30분에서 1시까지 두 번째 회기를 순차적으로 진행하였다. 부모교육이 시작되는 날 실험집단 어머니를 대상으로 사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부모교육이 끝나는 날 동일한 방식으로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실험대상자들의 동의하에 각 회기가 진행되는 동안 프로그램 진행 내용을 녹화하였고, 이를 통해 부모자녀간의 관계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 17.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효능감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고, 종속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한편,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문항 중 폐쇄형 질문에 대한 답변은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며, 개방형 질문에 대한 답변은 부모들의 응답내용을 범주화 한 후 각 유형에 해당하는 응답의 빈도를 산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프로그램 개발

1) ‘다문화가족 부모자녀관계증진 프로그램’ 개발

본 프로그램 개발연구는 크게 프로그램 구성안 개발과 프로그램 시행 후 프로그램 효과성으로 구분된다. 프로그램 구성안 개발연구 부분에서는 본 프로그램의 기본방향, 목표, 교육내용 및 세부 목표, 프로그램의 특징, 활동 운영지침이 제시되어 있고, 본 프로그램의 효과성 부분에는 프로그램의 형식 및 내용에 대한 만족도와 프로그램을 경험한 후 구성원들의 소감이 제시되어 있다.

(1) 다문화가족 부모자녀관계 증진 프로그램의 기본 방향

첫째, 본 프로그램은 다문화 지원센터의 서비스지원 인력이 다문화가족 부모를 대상으로 사용하기 용이하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즉 영상과 그림을 활용한 구조화된 교수-학습 방법으로 언어적 이해력이 부족한 다문화 부모에게 쉽게 시행하고, 시각적 자료제공으로 구성원들의 교육적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둘째, 본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 부모의 문화적 이질감을 줄이고 한국에서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즉 한국 속담과 부모자녀 간의 도구 없이 손쉽게 하는 활동과 전통놀이를 중심으로, 구성원들의 한국 가족에서 이루어지는 보편적인 놀이나 활동의 경험치를 높이고자 한다.

셋째, 본 프로그램은 강의 보다는 다문화가족 부모가 직접 경험하고 느끼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즉 프로그램에서 경험한 활동을 가정에 돌아가서 가족들과 직접 경험하도록 과제를 제시하고, 경험치에 관련하여 피드백을 제공하고자 한다.

(2) 다문화가족 부모자녀관계 증진 프로그램의 목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다문화가족 부모와 자녀를 위한 부모자녀관계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결혼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면서 편안한 임신과 출산 과정을 경험하기 어려웠을 다문화가족 어머니로 인해 생애 초기의 중요한 과정인 애착이 불안정하게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고(전혜정 등, 2009), 이는 부부갈등(김오남, 2006; 안현정, 2003; 이규삼, 2000)이나, 이주여성 개인의 정신건강문제(전혜정 외, 2008) 및 언어문제(김

오남, 2006; 양정화, 2005), 그리고 사회적 지지와 관련된 어려움(김나영, 2007; 노하나, 2007; 최경숙, 2006; 최지명, 2007)으로 인해 더욱 증폭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아동이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를 형성하는데 가장 유리한 발달 시기는 출생부터 만 3세까지이지만, 만일 그 시기에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 및 안정애착이 학습되지 않았다면 그 이후에 개선될 수 있다. 다만 그 학습과정이 좀 힘들고 효과적인 양육행동을 위한 지속적인 중재가 필요할 뿐이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의 개발 의도는 다문화가족의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를 재형성하고, 그들의 양육기술을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한 중재프로그램으로서 다문화지원센터 내에서 쉽게 활용가능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매뉴얼화하는 것이다.

본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가족 부모 자신 및 유아기 부모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일상생활에서 자녀들에게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사회적 기술과 교육방법 및 환경에 대한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다문화가족의 부모자녀관계를 증진시키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본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는 그림 2와 같다.

(3) 본 프로그램의 교육내용 및 세부목표

본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총 8회기로 구성되어 있다. 본 프로그램은 각 회기별로 독립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관련성이 있다. 다문화가족의 부모로서 바른 아동관과 양육신념을 가지고, 한국적인 양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1-2회기), 이를 바탕으로 유아기 자녀의 발달적 특성과 그에 맞는 양육 기술을 습득하여 자녀에게 적용해 봄으로써 유아기 자녀와 갈등을 줄이고 긍정적인 관계를 맺어보며(3-5회기), 다문화

목적 부모교육을 통해 다문화가족 부모 자신 및 유아기 부모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일상생활에서 자녀들에게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사회적 기술과 교육방법 및 환경에 대한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자녀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증진시킨다

부모로서의 자신감 신장 및 아동발달에 대한 이해 고양

1. 부모 자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한다.
2. 유아기 자녀에 대해 정확히 인식한다.
3. 부모 자신의 부족한 언어적 의사소통능력 외에 자녀와 긍정적인 관계를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4. 부모 자신의 문화적 이질감을 감소시킨다.
5. 유아기 자녀의 발달단계에 맞는 양육 및 교육 방법에 대해 이해한다.
6.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대한 기쁨을 느끼고 배우고자 하는 동기를 갖는다.
7. 자신의 잠재적인 능력을 발견하고 확인하며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자아실현을 하게끔 도와준다.

자녀의 건강한 발달 및 교육을 위한 부모역할 습득

1. 자녀의 발달수준에 맞게 양육하고 교육하는 방법을 습득한다.
2. 자녀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3. 자녀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한다.
4. 습득한 양육기술들을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적용하여 자녀에게 적합한 사회적 모델이 된다.

⇒

↓

↓

다문화가족 부모자녀관계 개선 및 자녀의 건강한 발달 도모

<그림 2> '다문화가족의 부모자녀관계 증진' 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

가족의 부모로서 또는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로서 경험하는 자녀의 행동문제의 이해와 대처방법을 익히고, 이때 경험하는 부모자신의 심리적인 어려움을 수용하는 경험을 하며(6-7회기), 마지막(8회기)으로 일상생활에서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도모할 수 있는 놀이를 실천해보고 적용해보는 기회를 갖는다.

(4) 본 프로그램 특징

본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 부모들로 하여금 부모로서 자긍심과 자신감을 갖도록 도와주고 유아기 아동의 발달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임과 동시에 아동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기술 및 교육방법을 알려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적응 및 발달을 촉진하고자 한다. 이에 본 프로그램 개발연구

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어머니와 자녀를 대상으로 '관계'에 초점을 두고 구체적인 접근을 지도하고자 하였다. 유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필수요소인 애착관계의 기초 위에 '신체적 접촉을 통한 놀이' 및 '대인관계적인 활동'을 중요시하며, 부모와 자녀간의 건강하고 바람직한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모자간에 건강한 애착관계를 재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신체적 접촉과 감각적 자극이 많은 놀이를 이용하여 유아에게 개입하고 그들의 충족되지 못한 퇴행적 욕구를 만족시키며 공감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관계성을 발전시키는 특징이 있다(성영혜 · 이창미 · 김연진 · 김유진 · 신현정, 2004).

이러한 목적 하에 본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㉔ 다문화가족 부모의 긍정적인 자아상을 높여주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다문화가족 부모들은 자녀양육에 상당한 관심과 열의를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뿐 아니라 아동 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나 자신감이 없는 상태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실수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좌절도 많이 경험한다. 이에 본 프로그램에서는 우선적으로 부모 자신의 긍정적인 측면을 모색하게 한다. ‘부모가 건강해야지만 자녀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한국 사회에서 부모로서의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들을 모색해 보는데 우선적으로 초점을 둔다. 즉, 부모 자신의 의사소통방법, 사회정서적 능력 등을 고양시킴으로써 자신감을 높이고자 한다. 더불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모로서의 장점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함으로써 자신감을 갖고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에 대해 자신있게 해결해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

㉕ 일상생활 속에서의 자녀 교육을 위한 모의수업 중심 프로그램

본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활동들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자녀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부모들은 다양한 활동들을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실시해보는 과정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부모와 자녀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㉖ 효율적인 부모역할 습득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아동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아의 잠재된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개방적인 환

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특히 다문화가족의 특수성으로 인해 다문화가족 아동들의 경우 또래관계 적용에 어려움을 보이기 쉬우며, 이때 가족 특히 어머니의 지지가 필수적이다. 부모는 자녀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자녀가 원하는 것을 최대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러한 방법을 익히는데 도움이 된다.

㉗ 교수-학습 방법으로 다양한 창의적 기법을 적용한 프로그램

대집단 강의식으로 진행하기 보다는 소집단의 토의 활동 등을 격려함으로써 부모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또한 교수-학습 방법으로 다양한 창의적 기법을 적용한다. 동일한 주제에 대한 구성원들의 경험과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해 봄으로써, 부모들이 내용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㉘ 현장 적용이 용이한 지도안 형태의 프로그램

실제 부모교육 상황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안 형태로 개발하고자 한다. 본 프로그램은 교육 현장에 투입될 강사들이 별도의 많은 준비 없이도 지도할 수 있게끔 되어있고 강사용 지도안과 함께 부모용 자료(교재)를 별도로 구성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된다.

㉙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이용한 프로그램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문화가족 부모들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도입한다. 파워포인트 자료를 도입하였으며, 다양한 매체(동영상, 그림 및 음악 등)를 이용하여 부모들의 흥미와 욕구를 증진시키고자 한다.

2.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

1) 다문화가족의 부모자녀관계 및 자긍심향상 프로그램의 효과검증

다문화가족의 부모자녀관계 및 자긍심향상 프로그램의 실시 전후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2 참조). 본 프로그램 실시 전,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정도를 살펴보면 일상적 스트레스의 평균은 3.46($SD = .44$)으로 나타났고, 부모역할수행에서의 스트레스 평균은 3.43($SD = .66$)로 보통 수준보다 조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본 프로그램 실시 후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 양육스트레스 총점은 본 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 = 2.30, p < .05$).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일반적 스트레스에서는

본 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모역할수행에 대한 부담감($t = 2.78, p < .05$)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다문화가족 부모자녀관계 및 자긍심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문화가족 어머니들은 본 프로그램 참여 전에 비해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프로그램 실시 전,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정도를 살펴보면 발달지원에 대한 효능감의 평균은 3.30($SD = .67$), 의사소통 효능감은 3.50($SD = .67$), 교육에 대한 효능감은 3.39($SD = .66$),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에 대한 효능감은 3.40($SD = .42$)로 보통 수준이거나 보통 수준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프로그램 실시 후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 양육효능감 총점($t = -2.99, p < .05$)에 있어서도 프로그램

<표 2> 다문화가족의 부모자녀관계 및 자긍심향상 프로그램의 사전사후 효과검증

		<i>N</i>	<i>M</i>	<i>SD</i>	<i>paired-t</i>
양육 스트레스	사전 일상적 스트레스	12	3.46	.44	1.89
	사후 일상적 스트레스	12	3.20	.52	
	사전 부모역할수행에 대한 부담감	12	3.43	.66	2.78*
	사후 부모역할수행에 대한 부담감	12	3.20	.64	
	사전 양육스트레스 총점	12	3.44	.52	2.30*
	사후 양육스트레스 총점	12	3.20	.54	
양육 효능감	사전 발달지원 효능감	12	3.30	.67	-2.09
	사후 발달지원 효능감	12	3.73	.49	
	사전 의사소통 효능감	12	3.50	.67	-2.44*
	사후 의사소통 효능감	12	3.90	.60	
	사전 교육 효능감	12	3.39	.66	-1.34
	사후 교육 효능감	12	3.63	.70	
	사전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에 대한 효능감	12	3.40	.42	-2.93*
	사후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에 대한 효능감	12	3.62	.39	
	사전 양육효능감 총점	12	3.40	.56	-2.99*
	사후 양육효능감 총점	12	3.75	.53	

* $p < .05$.

실시 전과 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의사소통 효능감 ($t = -2.44, p < .05$)과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에 대한 효능감($t = -2.93, p < .05$)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지만, 발달지원효능감과 자녀교육효능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문화가족 어머니들은 본 프로그램 참여 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부모역할에 대한 효능감이 높아졌고 특히 자신의 생각이나 요구를 이해하는 능력이나 자신의 생각을 자녀에게 전달하는 능력, 그리고 자녀의 심신건강과 관련된 활동 제공할 능력이 높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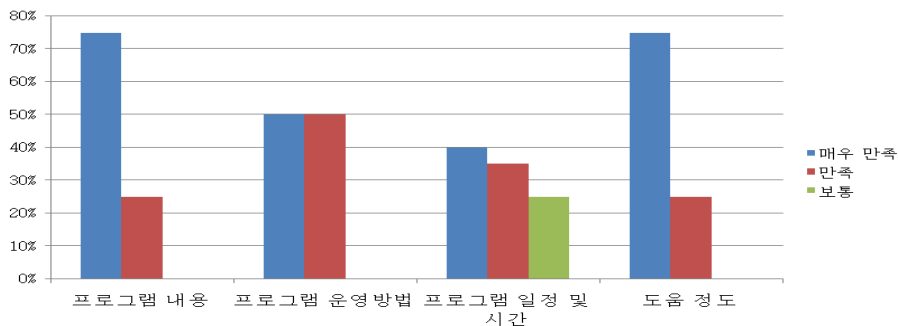
2) 본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평가

본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결과를 살펴보면, 그림 3과 같다. 본 프로그램의 내용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떤 내용에 가장 만족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자녀에게 공감하는 방법과 자녀의 발달에 맞는 양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 자녀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 활동 등에 상당히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프로그램 운영 방법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의 50%가 본 프로그램의 운영방법에 매우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들이 배운 것을 실천해

보고, 그림 자료와 동영상 등이 제공된 점이 이해를 높일 수 있다고 높이 평가하였다. 그 밖에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고, 부모들 서로가 지지해 줄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되어서 좋았다고 평가하였다. 본 프로그램 일정 및 시간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의 일정과 관련하여, 8회의 프로그램의 4회로 진행하다 보니, 좀 친해질 때쯤 마무리하게 되어 아쉽다는 평가가 있었고, 본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본 프로그램의 도움 정도는 대체로 본인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프로그램 실시 후, 어머니 자신에게 도움이 된 점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게 하였다. 인터뷰 결과를 요약 정리해 보면 표 3과 같다. 큰 범주로는 어머니 역할 수행에서의 자신감, 바람직한 자녀양육태도 및 기술습득, 양육스트레스 저하, 가족 및 시부모에 대한 이해, 자신에 대한 자신감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어머니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 1 어머니> 교육 받아서 제가 변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여태까지 애기들의 마음을 몰라줬어요. 몰라주고 제가 하는 대로 했어요. 왜냐면 7살이니까 할 수 있어. 이렇게 그냥 맨날 이



<그림 3> 다문화가족의 부모자녀관계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표 3> 본 프로그램 실시 후 부모들에게 도움이 된 점

범주	내용
어머니역할 수행에서의 자신감	- 일상생활에서 자녀와 함께 놀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배우고 나니 엄마로서의 자신감 습득. - 한국의 일상적인 놀이에 대해 알고 나니 자녀들과 훨씬 가까워지고, 자녀에게 무언가를 가르칠 수 있는 엄마로서의 자부심이 생김. - 어머니이기 때문에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더욱 강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 - 자녀의 수준에 맞게 돌보고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
바람직한 자녀양육태도	- 자녀에게 공감하는 방법을 배우고 나니 자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짐. - 아이와 가까워지는 법, 다루는 법(우는 아이 돌보기), 연령에 따라 출생순위에 따라 아이 대하는 방법의 차이 등에 대해 알게 됨. - 상황에 따른 효과적인 행동과 의사소통능력 습득하게 되어 도움이 됨(특히 실습을 통해서).
양육스트레스 저하	- 자녀를 키우는 것이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모든 엄마들이 경험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나니 훨씬 마음이 편해짐. - 자녀를 키우면서 생기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살펴보고 나니, 보다 마음이 편해짐.
가족 및 시부모에 대한 이해	- 남편에 대해 불만도 많았는데 다른 남편들에 비해 우리 남편이 잘 대해주고 있다는 점을 깨달게 됨. - 한국의 남편들이 감정표현을 잘 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 이해하게 됨. - 현재 시부모와의 갈등 원인 이해하게 됨.
기타	- 나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생김. - 다른 문화에서 자라고 생활한 것이 늘 어려움으로만 느껴졌는데, 수업 중에 나의 장점을 자꾸 찾아보니 내가 다른 문화에서 살았기 때문에 잘 할 수 있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됨.

렇게 니가 동생 봐달라고. 그거...(동생에게) 양 말 신겨줄 수 있잖아. 맨날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얘기들을 마음으로 받아서 공감을 해주어야 하는데 “하지 말라고 했잖아! 왜 했어”라고 하고 안아줬었어요. 안아줬더니 안정이 되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알고 다시 이렇게 안아주니깐 좀 안정이 되더라고요. 진짜 못해 준거 같아서 조금이라도 한 번 더 안아주는 거... 안아주니까 얼굴이 밝아지더라고요... 이젠 안아주고 만져주고 들어주려고 해요.

<사례 2 어머니> 애들한테 가서 여기서 배운 거 해주니까 재밌다고 더 하자고... 가자마자 해달라고(웃음). 피곤하다고... 뭐라 그래도, 애들은 신나가지고 재미있다는 거예요. 애들이 좋아가지고...

예...(머리를 쓸어 넘기며) 어제 같은 경우도... 전에는 무조건 “동생한테 양보해”라고 그랬거든요. 요즘에 많이 받아주니깐... 어제 동생한테 한 대 얻어 맞았어요. 전에는 꺾꽂 참고 그러더니 어제는 확 터트리더라고요. 요즘 약간 받

아주니깐... 어휴... 그 동안 얼마나 많이 참았겠나...(웃으며)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아~ 많이 아팠어?”(라고 말하고) 다독여주고 문질러주고 하니깐 더 좋아하더라고요.

<사례 7 어머니> 항상 내가 너가 최고라는 걸... 계속 안아주지는 못해도 마음으로는 계속 표현을 해주는 게 좋죠.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말고... 내가 미안하다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말고 가끔씩 사랑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게 좋은 거 같아요. 여기서 선생님이 해주시는 거 대부분은 솔직히 자랑은 아니지만요. 많이 제가 좀 그렇게 하고 살아 온 거 같아요. 근데 (웃음) 인정을 받은 셈이죠? 애 키우면서 그래도 나는 좀 성공적이구나... 싶기도 한데 그래도 제가 가끔씩 제 성격에 못 이겨서 그럴 때가 있었으니까 이젠 앞으로 그런 거마저 없고 더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례 3 어머니> 애들 막 이거 저거 할 때마다 이유있는 걸로 바쁘고 살림하다 보니까 모른 거 많은 거 같더라고요. 선생님 얘기 듣고서 아-

<표 4> 본 프로그램 실시 후 부모들의 다짐

범주	내용
<p>긍정적인 부모역할에 대한 다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부모되기(친구같은 부모, 이해하기 위한 노력) - 자녀의 감정을 읽고 이해하고 수용하는 자세 및 태도 - 자녀와의 바람직하고 자유로운 의사소통 - 아이에게 모든 사랑을 줄 것, 화목한 가정 - 칭찬을 많이 하는 부모가 되겠음 - 아이와 다양한 활동 및 놀이하기 - 피부접촉 통한 친밀감 높이기 - 아이 말에 잘 귀 기울이는 부모가 되겠음
<p>성숙한 존재로서의 부모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 지속적인 배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음 - 부모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기 - 보다 강한 엄마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함
<p>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가족 모두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며 살기

그럴 때에는 그러질 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애들이 이러한 데는 다 이유가 있어서...마음을...마음을 편히 해줘야하는 구나라는 것을 많이 알게(되었어요).

본 프로그램 실시 후, 어머니로서의 앞으로의 다짐에 대해 인터뷰 결과를 요약 정리해 보면 표 4와 같다. 큰 범주로는 긍정적인 부모역할에 대한 다짐, 성숙한 존재로서 부모되기 등을 들 수 있다.

<사례 5 어머니> 이제는 내 자리를 엄마로서의 위치를 확실하게 찾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아이와 대화를 많이 나누기로 마음 다짐을 하고...예...제일 중요한 거는 대화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도 보면 참 불쌍해요. 그냥... ○○이도 그동안 많이 때놓고 뭔가 별겠다고 많이 돌아다니고 했는데 진짜 시누도 어제 와서 그러더라고요. 애한테 이시기가 제일 중요하니까 애 키워 놓으면 그게 다 돈 되는거라고... 그래서 애한테 정성을 많이 해야할 것 같아요(웃음).

<사례 4 어머니> 이제는 내 아이에게 더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늘 “엄마 못해, 엄마 못해, 엄마는 한국말도 잘 못하니까 니가 해”라고 했어요. 우리 딸은 늘 나에게 “엄마 할 수 있어, 배우면 돼. 내가 가르쳐 줄게.”했어요. 이전 내가 한국말도 잘 배우고 우리 딸이랑 친구 되면

서 잘 지낼거예요. 우리 딸 더 사랑하면서 잘 지낼거예요.

<사례 8 어머니> 우리 시어머니 너무 힘들어요. 남편이랑도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도 둘째 낳으면 큰 애 잘 키우면서 살거예요. ○○엄마가 얘기한 것처럼 속상한 거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속상한 맘 풀면서 잘 해볼 거예요. 울지만 앓고... 친구들이랑 수다떨면서 스트레스 풀고, 우리 애들 잘 자라게 노력할 거예요.

<사례 7 어머니> 큰 애들한테 미안해할 것 없이 그냥 평소 아주 가끔씩이라도 진지하게 엄마는 그래서 항상 너를 사랑한다고 하면 애들이 그럴 잘 맞아주는 거 같아요. 애들에게 많이 표현하면서 살아야겠어요.

<사례 12 어머니> 아이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아이들이 싸울때 정말... 너무 힘들고... 고민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 꺼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아이들 편이되서... 아이들 마음을 이해하고... 아이하고 많이 놀아줄려고요...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잘 될지 모르겠지만 (주변 다른 어머니들이 격려함)... 네 잘될꺼예요~.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의 부모자녀간의 긍정적인 관계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유아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어머니인 결혼이주여성의 양육스트레스가 감소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상적인 스트레스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교육을 통해 어머니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자녀의 전인발달을 도울 수 있다(Bumting, 2004; Grimshaw & McGuire, 1998)는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가족 어머니들이 부모됨이나 부모역할이라는 것이 자신만의 어려움이 아니라 부모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어려움이라는 것을 공감하게 되고, 자녀와 보다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됨으로써 부모역할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본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족의 결혼이주여성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던 자녀양육 문제(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7; 경기도 가족여성개발원, 2007)에 도움이 되는 실천적 개입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볼 수 있다.

둘째, 본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유아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어머니인 결혼이주여성의 양육효능감이 증가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발달지원 효능감과 교육 효능감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의사소통 효능감과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효능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실제로 자녀교육에 대한 자신감은 다문화가족뿐 아니라 유아를 키우고 있는 한국 어머니들의 공통적인 고민거리이자 풀리지 않는 숙제이다. 단지 8회기의 프로그램을 통해

자녀교육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지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자녀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자신감과 자녀의 심신의 건강을 위해 자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 어머니들은 자신의 언어적인 문제로 인해(김갑성, 2006; 박미경, 2006; Hunt, 1999), 그리고 문화적 부적응 등 여러 개인적인 요인들로 인해 자녀와 상호작용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들은 자녀양육에 상당한 관심이 있기는 하지만 (송미경 · 지승희 · 조은경 · 임영선, 2008) 자녀와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호소한다. 일례로, 본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어머니와의 인터뷰 결과, 자녀가 무언가를 요구하면 어머니는 ‘그래’ 혹은, ‘안돼’라고 간단히 답하게 되는 것이 다반사라고 하였다. 특히, 어머니가 ‘안돼’라고 했을 때 자녀가 ‘왜’라고 물어보면 어머니는 적절한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워 ‘그냥 안돼’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였다. 이로 인해 자녀는 ‘엄마는 항상 안 된다고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이는 어머니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의 방해자로 작용할 뿐 아니라 자녀는 엄마로부터 거절당하거나 거부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특히, 유아기는 언어발달에 있어 결정적 시기이며, 유아기 언어발달에 부모와의 상호작용은 매우 중요한 변수(안영진, 2002; 이숙희 · 고인숙, 2006)이다. 제2 외국어로 한국어를 쓰는 다문화가족 어머니인 결혼이주여성은 유아기 자녀의 언어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김갑성, 2006; 박미경, 2006; Hunt, 1999)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유아기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은 양적인 풍부함 보다는 질적인 풍부함을 강조한다(안영진, 2002). 즉 언어적 의사소통 못지 않게 경청하여 들어주기, 긍

정적인 피드백 주기 등과 같은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유아기 자녀에게 더 큰 발달적 의미가 있다. 본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족 부모와 자녀 간의 신체적 접촉을 강조하는 놀이중심 프로그램으로 개발된 것을 감안하면, 본 프로그램은 언어적 한계가 있는 유아기 자녀를 둔 결혼이주여성에게 적합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끝으로 본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프로그램 내용, 운영방법, 일정 및 시간, 본인의 도움정도에 관한 주관적 평가는 전반적으로 매우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은 서울과 충남 두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실시하였고, 프로그램 참여자들인 다문화가족 결혼이주여성들은 언어적 능력, 모국의 다양성, 한국 문화의 적응정도 등의 사회문화적 배경이 매우 다양했지만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만을 대상으로 했다. 이는 모든 부모를 만족시키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있을 수 없으므로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참여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되어야 한다는 Sander(1992)의 주장과 관련지어 살펴 볼 수 있다. 본 프로그램은 개발배경부터 유아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결혼이주여성이 이해하기 쉽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다문화 지원센터에서 활용되기 용이하도록 운영방식을 구성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 결혼이주여성들의 자녀양육에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실천적 개입도구의 한 모델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첫째, 실험연구의 인과성을 밝히는 데 주요한 요건인 통제집단이 없다는 점과 둘째, 실험집단의 수가 적었다는 점과 셋째, 연구대상이 국적이 다르고 학력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8회기 동안 모두 참여한 사람들만을 분석에 포함시키다보니 실험집단의 수가 줄어들었다. 유아를 둔 다문화가족 어머니가 8회기를

모두 참여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러다보니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문화가족 어머니들이 자녀양육에 대해 배우고자하는 열의가 높은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이로 인해 본 연구 결과를 모든 다문화가족에게 일반화시키기 어렵다. 하지만 본 프로그램은 유아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의 부모자녀관계 증진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여 개발되었고 어느 현장에서건 다문화가족에게 쉽게 적용할 수 있게 개발되었다는 장점을 갖는다. 요컨대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의 부모자녀 간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위한 실천적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참 고 문 헌

- 구수연(2007). 어린이집 생활을 통해 본 여성 결혼이민자 자녀와 가정에 대한 이해. **열린유아교육연구**, 12(5), 95-124.
- 권연희·박경자(2003).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성, 대인간 문제해결 전략 및 어머니 행동. **아동학회지**, 24(3), 27-44.
-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2007). **경기도내 국제결혼 이민자가족 실태조사 및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경기도 여성개발원.
- 김갑성(2006). 한국 내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기현·강희경(1997).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5(5), 141-150.
- 김나영(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 사회적 지지와 사회참여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리진(2008). 유아의 사회정서적 행동문제에 대한 구조모형 분석.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상임(2004). 상담사례를 통해 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삶. **이주여성인권센터 창립 3주년 심포지엄 자료집**, 17-48.
- 김연수(2008).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탄력적 부모되기 프로그램’ 적용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4**, 189-222.
- 김오남(2006). 여성결혼 이민자의 부부갈등 및 학대에 관한 연구-사회문화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8**, 33-76.
- 김오남 · 김정신 · 이정화(2008). 결혼이민자 남편의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1), 69-84.
- 김희태 · 권영덕(2007).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아교육 기관에의 적응과 변화과정.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4**(4), 95-117.
- 노하나(2007). 중국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 문화적응유형과 이주여성이 인지한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문연심(2003). 부모-자녀관계 유형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민성혜(2006). 유아 내적 표상과 행동억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민성혜 · 김영애 · 김송이(2008). **영유아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서울: 양서원.
- 민성혜 · 이민영 · 최혜영 · 전해정(2009). 다문화 가정 유아기 자녀의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모형 분석. **대한가정학회**, **47**(1), 55-63.
- 박경자 · 김송이(2007). 농촌지역 국제결혼가정 유아의 사회 · 정서 발달. **아동학회지**, **28**(5), 91-108.
- 박미경(2006). 교사를 통해 본 다문화가족 유아의 특성 및 교사의 어려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보건복지가족부(2008).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대책. 브리핑 자료(2008년 10월 30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7). 다문화가족 지역정착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성영혜 · 이창미 · 김연진 · 김유진 · 신현정(2004). **치료를 통한 영유아 보육**. 서울: 시그마프레스.
- 송미경 · 지승희 · 조은경 · 임영선(2008). 다문화가정 외국인 모의 부모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20**(2), 497-517.
- 안영진(2002). **아동심리와 부모교육**. 서울: 도서출판사 꾸벅.
- 안현정(2003). 국제결혼 부부의 결혼만족에 관한 연구 : 한국 남성과 필리핀 여성 부부를 중심으로. 초당대 산업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양옥경 · 김연수(2003). 가족탄력성 증진을 위한 부모 역할 프로그램 개발연구. **사회복지학연구논집**, **11**, 115-147.
- 양정화(2005). 이주여성의 차별과 폭력경험에 관한 실태 조사 연구 :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경하(2009).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이 영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규삼(2000). 국제결혼 가정의 부부갈등 요인에 관한 연구 : 한 · 일 국적 가정을 중심으로. 순천향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무영 · 강기정(2007).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 및 결혼만족도 향상을 위한 현실요법 집단프로그램의 효과. **한국가족복지학**, **12**(2), 29-44.
- 이숙희 · 고인숙(2006).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위한 현대부모교육**. 서울: 교육아카데미.
- 이재연 · 김경희(1993). **부모교육**. 서울: 양서원.
- 인봉숙(2002). 한일 국제결혼가정 2세의 한국생활 적응 실태조사 연구 : 천안시 거주 통일교인 가정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전혜정 · 민성혜 · 이민영 · 최혜영(2009). **다문화가정 영유아 사회정서 발달증진 프로그램**.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 조영달(2006).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과제 2006-이슈-3.
- 최경숙(2006).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지지와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 대구 ·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지명(2007). 국제결혼 부부의 의사소통 방식, 정서

- 적 의사소통, 사회적 지지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경상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혜영 · 이은혜(2005). 아동의 또래 상호작용과 교사 신념 및 교사행동 간의 관계. *유아교육연구*, 25(5) 319-342.
- Bunting, L. (2004). Parenting programmes : The best available evidence. *Child Care in practice*, 10(4), 327-343.
- Grimshaw, R., & McGuire, C. (1998). *Evaluating parenting programmes : A study of stakeholder' views*. London : National Children's Bureau Enterprises Ltd.
- Gross, D., & Rocissano, L. (1988). Maternal confidence in toddlerhood : its measurement for clinical practice and research. *Nurse Practitioner*, 13, 19-29.
- Hammen, C. (1992). Cognitive, life stress, and interpersonal approaches to a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model of depressio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4, 189-206.
- Harter, S., Marold, D., & Whitesell, N. R. (1992). A model of psychosocial risk factors leading to suicidal ideation in young adolescent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4, 167-188.
- Hunt, R. (1999). Making positive multicultural early childhood education happen. *Young Children*, 54(5), 39-42.
- Panak, W. F., & Garber, J. (1992). Role of aggression, rejection, and attributions in the prediction of depression in childre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4, 145-165.
- Salovey, P., & Mayer, J. D. (1996). What is emotional intelligence? In Salovey, P., & Sluyter, D. (Eds.),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 Implications for educators*. New York : Basic Books.
- Sanders, S. W. (1992). *Designing Preschool Movement Programs*. Champaign, IL : Human Kinetics Publishers.

2010년 10월 29일 투고, 2010년 12월 29일 수정
2010년 12월 31일 채택